

익산시 민·관 손잡고 민생·경제 회복

민·관 망라 '경제회복대책본부' 출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나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단'도 가동

익산시가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본부'를 구성, 출범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상권 활성화추진단'을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

먼저 '경제회복 대책본부'에는 익산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통시장상인회,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용안정일자리센터 등이 참여한다.

대책본부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과 나눔 릴레이 운동을 펼치며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구성됐다.

대책본부는 주요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또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해법 모색에 나선다.

익산시는 부시장을 실무추진단장으로 해 총괄 지원반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재난·복지지원반 등 5개 반으로 나눠 대책본부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부서별로 경제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다.



지난 5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양희준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본부' 발대식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앞서 익산시는 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1917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88.9%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로는 저금리 자금 대출지원 39.1%, 지방세 감면 18.1%, 고용 유지 혜택지원 14%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화폐 익산다리로움을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50만원 한도에서 충전 시 10% 인센티브와 10%페이백을 연중 상시 제공한다.

익산시는 영등동 상인회, 지역주민,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상권활성화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지역 역사자원과 인물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소풍·커뮤니티·청년창업·문화·예술 등이 함께 공존하는 상권을 조성해나

갈 예정이다. 특히 영등동 상권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익산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홍보, 실행계획 수립, 상인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상권르네상스는 시장, 상점가,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100억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민관이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연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치매파트너 단비' 지원 업무 협약

고창군이 노인성질환 치매와 관련해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창군은 최근 치매안심센터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고창장애인복지관 및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와 '치매파트너 단비 지원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치매파트너 단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 노인에게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 치료, 보호 등 치매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활지원사 88명에게 치매 바로알기와 인지강화 교구사용법 등을 사전교육한 뒤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지자극 손놀이도구, 인지강화 그림북 등의 물품이 담긴 '두뇌넉넉 꾸러미'를 지원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사회공동체가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치매파트너 '단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 섬진강마실휴양단지내 숲속 야영장에서 바라본 주변 풍광. <순창군 제공>

순창 섬진강마실휴양단지 '숲속 야영장' 개장

순창에 흐르는 섬진강과 장군목을 비롯해 용평산 자연휴양림의 풍광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숲속 야영장이 문을 열었다.

순창군은 야영장 15면과 텐션 3개 동을 운영하던 적성면의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가 최근 19면의 야영장을 갖춘 '숲속 야영장'까지 시설을 확장했다고 7일 밝혔다.

순창군이 조성하고 민간 위탁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단지에는 바로 앞에 섬진강이 흐르고 장군목과 용평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해 사계절 관

광객이 즐겨찾는 자연환경과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름이면 대표 마을축제인 '섬진강 솔로솔로 발효마을축제'가 열려 축제를 찾는 도시민의 발길도 많은 곳이다.

코로나19로 실내활동이 제약을 받아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가능한 캠핑장이 호황인 가운데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곳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순창=정영근 기자 yjg@kwangju.co.kr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 통관장' 들어선다

군산항을 전자상거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상특송화물 통관시설이 내년에 들어설 전망이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와 전북도는 종합물류기업(주한진, 군산~중국 스나오(石島)) 직항로 운영선사인 석도국제해운(주)와 함께 군산항에 중국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한 해상특송화물 통관장 설치에 나섰다.

현재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은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통관이 이뤄진다.

군산항은 중국 산둥성(山東省)과 최단 거리에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산~스나오 간 주 6회 화물서비스가 이뤄져 해상특송화물 유치에 경쟁력을 갖췄다. (주)한진은 군산항 인근 부지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 해상특송화물 통관장 개장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투자계획, 인력 운용 계획, 고용인력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화하면 신속한 승인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조선시대 삽화 걸작 '선운사 석씨원류' 30년만에 돌아온다

성종때 왕명으로 석가 일대기 새겨 문화재청 회수 도난 문화재에 포함

조선시대 삽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1점이 도난된 지 30여년 만에 고창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34점의 도난 문화재를 회수했다. 이 중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전북 유형문화재 14호) 1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대에 도난된 것으로 추정되던 목판 중 회수된 1점을 고창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석씨원류 목판은 석가의 일대기를 글과 그림으로 새긴 것으로 조선 성종 17년(1486)에 왕명으로 제작됐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

이후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다가 그 곳에서 1점을 구해 돌아왔고 인조 26년(1648) 최서동과 해



문화재청이 회수한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앞면.

운법사가 이를 본떠 다시 간행했다.

이때 새긴 판각이 오늘날까지 고창 선운사에 보관된 석씨원류 판각 목판이다.

가로 39cm, 세로 29.5cm의 각판 앞뒷면이 모두 판각돼 있으며, 하단에는 '석씨원류' 본문이 새겨져 있고 상단에는 그 내용이 그림으로 조각돼 있다.

목판은 본래 103매 409판이었지만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현재는 62매 124판만 문화재로 지정

·관리돼 오고 있으며 당시 사라진 목판은 모두 43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씨원류 목판은 선운사본(禪雲寺本)과 불암사본(佛庵寺本) 두가지 판본이 전해지며 선운사본은 상단에 그림이 있고 하단에 본문을 배치한 '상도하문(上圖下文)' 형식이다. 선운사 석씨원류의 판각은 조선시대 삽화의 걸작 중 걸작으로 평가되는 국내 미술사 특히 판화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자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중한 문화재가 제자리에 서 그 가치에 맞는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중한 고창의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남은 목판도 무사하고 향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과 선운사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석씨원류 목판복원사업'을 펼쳐 현재 망실 및 파손된 목판 52매를 복원한 상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